

“북미 고위급회담 날짜·일정 아직 확정 못해”

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 주지 않고 있다” “실무협상 곧 이뤄질 것...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가능”

북한과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예고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여서 북한 측에서 확실하면 회담은 바로 성사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과 만나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흘쯤

안에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회담을 ‘여기’에서 갖고 비핵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기’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도 북한에서 준비를 마치는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 보완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건-최선희 라인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합의문은 물론이고 경호와 통신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입

장을 만들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제보장과 경제안정 등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하는 일관된 입장이 북미협상에 앞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이 북미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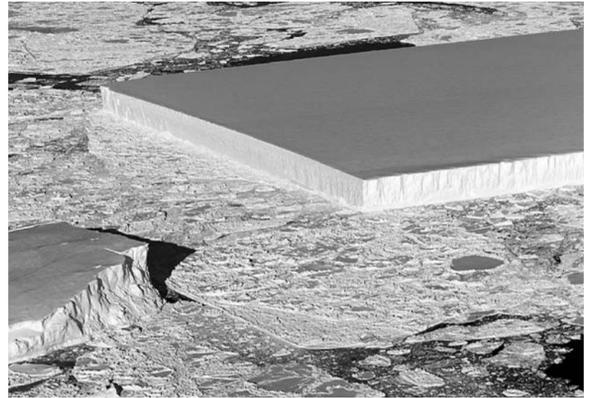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둘러싼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딘가에 농축시설을 넣어뒀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영변에 모여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정리하면 북한 핵능력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 일부로서 말해왔고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은 연내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협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완벽한 네모...외계인이 빚었나 남극서 직사각형 거대 빙산 발견



지난 5월 빙붕서 떨어져 나와 NASA “자연스러운 현상”

남극 빙산 하면 해수면 아래 커다란 덩어리가 있고 그 위로 첨탑처럼 뾰족한 모양이 솟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웬만한 대학 캠퍼스 면적의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한 빙산(사진)이 발견돼 이런 통념이 깨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극지방 빙산 변화를 항공 관측으로 확인하는 ‘아이스 브릿지 작전’ 임무 중에 촬영된 거대 빙산 사진을 공개했다.

폭 1.6km의 이 빙산은 매우 정교하게 분리된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완벽한 직사각형 조각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빙산이 남극 동쪽 ‘라센C 빙봉’에서 지난 5월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빙봉 추가 균열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촬영된 직사각형 모양의 빙산은 남극의 초거대 빙산 ‘A-68’이 얼음으로 덮인 바위투성이의 북서쪽 섬과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미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대와 나사가 함께 만든 지구시스템기술공동센터(JCET) 연구과학자 크리스토퍼 슈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는 라센 C 빙봉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하지만 빙산은 계속 육지의 빙하로부터 얼음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슈만은 빙봉으로부터 가끔 빙산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성 사진으로 볼 때 이 빙산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훨씬 서쪽으로 갔다는 게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남극 북쪽에 있는 ‘라센A 빙봉’의 경우 1995년 부서졌다. 미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 연구과학자 티일러 문은 빙산이 직각으로 잘려나간 것은 말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얼음은 미세하고, 그래서 결정체 모양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유리조각처럼 깨진다는 것.

문은 “빙하 조각이 해저와 만났을 때 그곳에서 발생하는 간섭 현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쪼개져 기형적인 모양으로 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슈만과 문 모두 직사각형 빙산의 모양은 특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1조 8000억 적파

美 사상 최고액 복권 당첨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 나와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고액 당첨금인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가 걸린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의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과 메가볼 5로 추첨이 됐다. AP통신 등 미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복권협회 소속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육복권’은 홈페이지에서 “최소 한장의 복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권협회 측은 24일 오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ABC 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첨의 당첨자는 일시불로 돈을 받게 될 경우 9억1300만달러(약 1조335억 원)를 손에 쥌 수 있다. 연금형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16억달러를 29년에 걸쳐 수령하게 된다.

메가밀리언은 1부터 70까지 수에서 숫자 5개와 1-25에서 메가볼 숫자 하나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된다. 메가밀리언은 한 장당 2달러에 판매되며 이론상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이다. /연합뉴스



카슈끄지 암살 의혹 빈 살만 국제회의의 등장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앞줄 오른쪽) 사우디 왕세자가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 서 열린 국제회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T)에 참석,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앞줄 가운데)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아베 또 개헌 드라이브...“여야 입장 넘어 합의 확산”

중의원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개최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자신이 ‘정치적 사명’으로 거론해온 개헌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수렴,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는 기대를 공식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3연임에 성공했던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에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심사회에서 정당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갈 것”이라고 말해 이번 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개헌에 성공하면 2향을 삭제하는 개헌을 재차 추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미일, 한미일의 결속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푸틴 내달 11일 파리에 정상회담 개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11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크렘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비협정(preliminary agreement)을 확정했다고 러시아 외무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302호
 -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 전체 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65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 ✓ 53평, 701호
 - ✓ 사무실/주거겸용, 20층중 7층, 코너
 - ✓ 전체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3대 무료
 - ✓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90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문의. 010-6834-7400